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인식과 수행 빈도 비교

장은희¹, 모문희^{*}, 최은희¹
¹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Perceived Importance and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wards

Eun-Hee Chang¹, Moon-Hee Mo^{1*}, Eun-Hee Choi¹

¹School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과 실제 빈도가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조사연구로 2011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0월 30일까지 D광역시 소재 Y 대학병원 간호사 1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개 문항에 대해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일반병동이 특수병동에 비해 피내주사(p=.011), 수혈요법(p=.028), 단순도뇨(p=.047), 배출관장(p=<.001), 수술 전· 후 간호(p=.035), 입원관리하기(p=.027)와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p=.002)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실제 수행 빈도는 일반병동이 특수병동에 비해 수혈요법(p=.002), 간헐적 위관영양(p=.032), 단순도뇨(p=<.001), 배출관장(p=<.001), 수술 전 간호(p=.001), 수술 후 간호(p=<.001), 입원관리하기(p=.001), 격리실 출입시 보호장구 착용(p=.021)과 비강캐놀라를 이용한 산소요법(p=<.001)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병동에서 중요하고, 실제로 특수병동보다 많이 수행하는 일반병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과 특수병동에서 중요하고, 일반병동에 비해 많이 수행하는 특수병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을 체계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the core nursing skills between general and special department. Subjects were 182 nurses who work on the hospital. Data was collected using items made by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and analyzed by frequency, mean and t-test. There were differences of importance and frequencies about nursing core skill between general and special wards. Core nursing skills of general wards were higher importance on intradermal injection(p=.011), transfusion(p=.028), simple catheterization(p=.047), cleansing enema(p=<.001), preoperative and postoperative care(p=.035), management administration(p=.027) and oxygenation with cannular(p=.002) than special wards. Actual performance frequency core nursing skills of general wards were higher similar on transfusion(p=.002), intermittent tube feeding(p=.032), simple catheterization(p=<.001), cleansing enema(p=<.001), preoperative care(p=.001), postoperative care(p=<.001), management administration(p=.001), protection equipment for quarantine room and waste disposal(p=.021), oxygenation with cannular(p=<.001) than special wards. It is needed to develop efficient and sequential program to learning the nursing core skills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Nurses, General and Special wards

*Corresponding Author : Moon-Hee Mo(Yeungnam University College)

Tel: +82-10-7502-1085 email: mhmo1@ync.ac.kr

Received January 22, 2015

Revised (1st February 2, 2015, 2nd February 9, 2015)

Accepted February 12, 201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환자의 위중도와 주요 간호영역의 특성에 따라 간호사의 간호 수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병동별 핵심기본간호술을 파악한 연구로는 일반병동[1], 수술실[2]과 중환자실[3]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과 핵심간호중재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이 다른 일반병동과 비교했을 때 간호중재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의 간호중재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며 단지, 병동특성에 따른 간호중재와 환경 차이로 인해 간호사의 그룹 응결력과 사회적 지지 및 역할갈등과 직무만족도[4, 5]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최근 간호교육은 국내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학습 성과 기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6], 임상현장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간호사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있다[7, 8]. 핵심기본간호술이란 병원에서 근무하는 졸업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실기역량으로[9] 2012년부터 한국간호교육평가원(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KABON])에서 실시하는 간호대학평가 항목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병동별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간호영역에서 신규졸업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순차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학습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되지 못한다. 물론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간호학생이 이수하는 기본간호학 교과목에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모두 습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과과정에 따라 기본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과 같은 항목은 심장생리와 심장간호를 학습한 후에 습득해야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면서도 순차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간호학생은 핵심기본간호술을 모두 습득한 상태에서 임상실습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 임상실습을 나가는 간호학생이 20 여명의 핵심기본간호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현실적으로 간호학생이 한 주 또는 한 단위 임상실

습을 경험하는 동안, 모든 핵심기본간호술을 관찰하거나 적용해볼 기회를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임상실습을 처음 나가는 간호학생이 실습하게 되는 일반병동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습하는 특수병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일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을 먼저 선행 학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술기와 실제로 수행하는 간호술기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10, 11]. 또한 근무 병동별로도 간호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달랐다[12]. 실제로 심폐소생술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중재이지만 일반병동에서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중재이다. 반면에 중환자실에서는 흔히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며 심장중환자실에서는 제세동기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에 병동별로 생명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한 중재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핵심기본간호술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생이 순차적으로 핵심기본간호술 습득을 할 수 있는 학습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수행 빈도 비교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고,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취약한 핵심수기 항목을 찾아내는 것은 향후 학부교육 및 신규간호사 실무교육의 학습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가장 간호중재 차이가 있을 것이라 유추되는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핵심기본간호술과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한다.
- 2) 대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기본간호술과 실제로 수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을 파악한다.
- 3)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 인식정도를 비교한다.
- 4)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실제 수행정도를 비교한다.

1.3 용어정의

1.3.1 일반병동

정신성, 전염성, 난치병, 나병상 이외의 병동을 말하며 진료과별, 만성, 급성별, 성·연령별 등에 대응한 설비, 관리 체제가 필요한 병동을 의미하며[13], 본 연구에서는 모든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산실, 투석실, 수술실, 마취 회복실, 응급실과 외래병동을 제외한 병동 전체를 의미한다.

1.3.2 특수병동

환자의 증상에 따른 특별한 설비, 관리가 요구되는 병동을 의미하며[13] 본 연구에서는 모든 중환자실, 정신과 병동, 산실, 투석실, 수술실, 마취회복실, 응급실을 의미한다.

1.3.3 핵심기본간호술

핵심간호중재란 특정 임상 분야의 특성을 정의해주는 중재로서 특수 분야 간호사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거나 50% 이상의 간호사들이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는 간호 중재이다[9]. 본 연구에서는 간호평가원에서 2012년 발표한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 항목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가 지각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과 실제 빈도가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 참여에 동의한 Y대학교 병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된 총 187명의 설문지 중 질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82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0.90, 효과크기 0.25로 설정하여 최소한 171명이 필요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182명으로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한국간호평가원에서 2012년 개발된 핵심기본간호술 20개 항목을 이용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는 간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수행 빈도는 20개의 간호중재 중 간호사가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와 실제 수행 빈도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20점 만점으로, 가장 낮은 것을 1점으로 환산한 값으로 제시하였다.

2.4 자료수집

간호사가 지각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와 수행 빈도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는 Y대학병원 간호부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윤리적 측면에 대한 것과 연구가능성을 인증 받았다. 이 후 2011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0월 30일까지 전체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설문에 응하기로 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모두 총 182부로 자료수집에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20개 문항에 대해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는데 약 5분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와 실제 수행 빈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한계

연구의 대상은 일개 대학부속병원에 소속된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병원의 특성 상, 일반병동에 비해 특수병동의 간호사 수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간호사들의 연령은 평균 34.59(±8.56)세이었으며, 경력

은 평균 12.57(±7.93)년이었다. 일반병동의 간호사가 149명으로 전체의 81.9%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학사학위 졸업자가 85명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전문학사로 76명, 42.7%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82>

Characteristics	M±SD or N(%)
Age(yr)	34.59±8.56
Career(yr)	12.57±7.93
Department	
General wards	149(81.9)
Special wards	33(18.1)
Education	
Diploma	76(42.7)
Bachelor	85(47.7)
Over than master	17(9.6)

3.2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와 실제 수행 빈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는 경구투약(17.12±4.80), 격리실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16.65±3.62),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13.29±6.14) 순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실제 수행 빈도는 경구투약(18.24±3.50),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17.09±3.73), 배출관장(14.94±4.86) 순이었다. 핵심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정도는 실제 수행 빈도에 비해 경구투약(p=.001), 피내주사(p<.001), 간헐적 위관영양(p<.001), 단순도뇨(p<.001), 배출관장(p<.001), 수술 전 간호(p=.009), 수술 후 간호(p=0.29)와 기관 내 흡인(p=.017),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p<.001),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p=.012)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헐적 위관영양(12.96±4.34), 수술 전 간호(10.78±4.97),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13.29±6.14)과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10.20±5.00)은 실제 수행 빈도에 비해 중요성 인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Importance and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N=182>

Core nursing skills	Importance	Priority	Frequency	Priority	t	p
	M±SD		M±SD			
Vital sign check	8.35±5.50	16	8.31±5.54	15	0.09	.928
Oral medication	17.12±4.80	1	18.24±3.50	1	3.24	.001
Intramuscular injection	9.04±3.58	15	9.21±3.87	12	0.47	.639
Subcutaneous injection	7.15±4.76	19	7.76±4.78	17	1.81	.072
Intradermal injection	4.28±3.47	20	6.06±3.62	20	5.71	.001>
Intravascular injection	11.20±5.11	8	10.56±4.87	10	1.38	.17
Transfusion	11.49±5.60	6	11.55±5.46	6	0.16	.873
Intermittent tube feeding	12.96±4.34	4	10.83±4.32	7	5.55	.001>
Simple catheterization	9.41±6.29	13	13.43±5.77	4	7.89	.001>
Indwelling catheterization	11.41±5.23	7	11.87±5.43	5	1.20	.234
Cleansing enema	12.58±4.94	5	14.94±4.86	3	6.00	.001>
Preoperative care	10.78±4.97	9	9.59±5.23	11	2.65	.009
Postoperative care	9.84±4.52	11	10.77±4.59	8	2.21	.029
Management admission	9.16±5.03	14	8.65±4.83	14	1.23	.219
Protection equipment for quarantine room & waste disposal	16.65±3.62	2	17.09±3.73	2	1.53	.128
Pulse oxymeter check & EKG monitor apply	13.29±6.14	3	7.15±4.76	19	12.05	.001>
Oxygenation(nasal cannular)	7.64±4.57	18	8.04±4.29	16	1.04	.299
Endotracheal suction	9.64±4.80	12	10.69±4.52	9	2.41	.017
Tracheostomy care	8.09±5.53	17	7.29±5.80	18	1.72	.087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defibrillator apply	10.20±5.00	10	8.99±5.90	13	2.55	.012

3.3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일반병동에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는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경구투약과 배출관장 순이었다. 특수병동에서는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 순이었다.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일반병동이 특수병동에 비해 피내주사(4.50±3.56), 수혈요법(12.01±5.25), 단순도뇨(10.18±6.32), 배출관장(13.47±4.90), 수술 전 간호(11.07±5.21), 수술 후 간호(10.14±4.66), 입원관리하기(9.39±5.16)와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8.12±4.60)이 유의하게 높았다. 경구투약(19.09±2.17), 피하주사(9.91±5.83), 정맥 수액 주입(13.70±4.48), 간혈적 위관영양(14.42±2.86), 기관절개관 관리(11.27±4.39)와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12.36±5.17)은 특수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실제 수행 빈도

일반병동에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실제 수행 빈도는 경구투약,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과 배출관장 순이었다. 특수병동에서는 경구투약, 정맥 수액 주입,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 순이었다.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실제 수행 빈도는 일반병동이 특수병동에 비해 수혈요법(12.17±5.44), 간혈적 위관영양(11.25±4.32), 단순도뇨(14.17±5.54), 배출관장(15.81±4.45), 수술 전 간호(10.27±5.12), 수술 후 간호(11.38±4.38), 입원관리하기(9.08±4.83),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17.36±3.71)과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8.83±4.03)이 유의하게 높았다. 경구투약(19.36±2.32), 피하주사(11.12±4.34), 정맥 수액 주입(16.06±3.12),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10.55±4.84), 기관절개관 관리(12.97±5.11)와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15.94±3.68)은 특수병동이 일반병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4].

[Table 3] Importance of Core Nursing Skills according to wards

<N=182>

Core nursing skills	General wards	Priority	Special wards	Priority	t	p
	M±SD		M±SD			
Vital sign check	8.54±5.50	16	7.21±5.46	18	1.26	.210
Oral medication	16.60±5.31	2	19.09±2.17	1	2.65	.009
Intramuscular injection	8.97±3.71	15	9.15±3.02	14	0.31	.762
Subcutaneous injection	6.31±4.17	19	9.91±5.83	10	3.36	.002
Intradermal injection	4.50±3.56	20	3.06±2.67	20	2.61	.011
Intravascular injection	10.51±5.23	9	13.70±4.48	5	3.24	.001
Transfusion	12.01±5.25	6	9.30±6.36	12	2.27	.028
Intermittent tube feeding	12.51±4.59	5	14.42±2.86	4	3.06	.003
Simple catheterization	10.18±6.32	10	7.73±6.50	10	2.00	.047
Indwelling catheterization	11.09±5.33	7	12.00±5.20	7	0.89	.374
Cleansing enema	13.47±4.90	3	10.09±4.50	9	3.63	.001>
Preoperative care	11.07±5.21	8	9.42±3.63	11	2.15	.035
Postoperative care	10.14±4.66	11	8.30±3.62	15	2.12	.035
Management admission	9.39±5.16	14	7.24±4.16	17	2.23	.027
Protection equipment for quarantine room & waste disposal	16.82±3.64	1	15.55±3.09	2	1.87	.063
Pulse oxymeter check & EKG monitor apply	12.94±6.15	4	14.73±5.17	3	1.55	.122
Oxygenation(nasal cannular)	8.12±4.60	17	5.91±3.23	19	3.27	.002
Endotracheal suction	9.99±4.54	12	9.27±5.65	13	0.68	.498
Tracheostomy care	7.44±5.33	18	11.27±4.39	8	3.85	.001>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defibrillator apply	9.65±4.82	13	12.36±5.17	6	2.89	.004

[Table 4] Frequency of Core Nursing Skills according to wards

<N=182>

Core nursing skills	General wards		Special wards		t	p
	M±SD	Priority	M±SD	Priority		
Vital sign check	8.42±5.62	16	8.09±5.22	15	0.31	.760
Oral medication	17.93±3.73	1	19.36±2.32	1	2.79	.007
Intramuscular injection	9.25±3.92	12	9.18±3.83	13	0.09	.929
Subcutaneous injection	6.83±4.53	17	11.12±4.34	7	4.91	.001>
Intradermal injection	6.27±3.61	19	5.58±3.55	19	0.99	.323
Intravascular injection	9.40±4.21	11	16.06±3.12	2	8.52	.001>
Transfusion	12.17±5.44	5	8.88±5.12	14	3.15	.002
Intermittent tube feeding	11.25±4.32	8	9.45±4.08	12	2.16	.032
Simple catheterization	14.17±5.54	4	10.15±5.90	10	3.68	.001>
Indwelling catheterization	11.92±5.32	6	11.94±6.18	6	0.01	.989
Cleansing enema	15.81±4.45	3	11.03±4.78	8	5.44	.001>
Preoperative care	10.27±5.12	10	6.91±4.94	17	3.40	.001
Postoperative care	11.38±4.38	7	7.85±3.88	16	4.24	.001>
Management admission	9.08±4.83	13	6.42±3.73	18	3.44	.001
Protection equipment for quarantine room & waste disposal	17.36±3.71	2	15.73±3.74	4	2.26	.021
Pulse oxymeter check & EKG monitor apply	6.46±4.37	18	10.55±4.84	9	4.70	.001>
Oxygenation(nasal cannular)	8.83±4.03	14	4.58±3.66	20	5.52	.001>
Endotracheal suction	10.83±4.34	9	10.09±5.41	11	0.84	.405
Tracheostomy care	5.90±5.15	20	12.97±5.11	5	7.06	.001>
Basi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defibrillator apply	7.12±5.11	15	15.94±3.68	3	11.35	.001>

4. 논의

본 연구는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수행 빈도를 파악함으로써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했던 핵심기본간호술은 경구 투약이었으며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가 그 다음이었다. 현재까지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연구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Sung과 Jeong(2006)이 종합전문요양기관 간호사를 대상으로 35개 분야 핵심 역량을 도출한 것 중[12] 본 연구의 핵심기본간호술만을 발췌하여 비교한다면 감염관리와 투약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투약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사가 많이 수행하면서 본인의 간호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약간호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병원감염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빈도가 높은 것은 병원감염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경제적 손실, 윤리적 문제와 의료기관의 이미지 손

상과 환자의 불신감[14] 등을 예방하고 환자의 예후를 증진하고자[15] 하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염관리는 병원인증평가에도 삽입되어 있어[16] 감염관련 핵심기본간호술은 간호 대학생이 반드시 학습해야하는 필수 핵심기본간호술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경구투약과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을 제외한 다른 핵심기본간호술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행 핵심기본간호술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Kwon, Cho 및 Shin(2007)과 Choi와 Seo(2009)의 연구에서 간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호중재와 실제로 수행하는 간호중재의 차이가 있었던 것[11, 17]과 같은 결과로 병동 특성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이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활력징후 측정과 같은 핵심기본간호술은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 16위, 수행 빈도에서 15위로 나타나 Kwon 등 (2007)과 Kim, Park 및 Lee(2008)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17, 18]. 활력징후는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생리적인 기능 변화를 나타내므로 활력징후를 측정하면서 환자를 사정하는 일은 간호사의 주요 업무의 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최근 활력징후의 측정이 센스를 부착해 자동적으로 활력징후를 모니터

하거나 자동화 기계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어, 활력징후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간호활동의 97.9%가 활력징후 측정인 것을 고려한다면[19], 간호 대학생들에게 많이 위임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활력징후 측정은 모든 치료와 간호중재에 대한 반응을 사정하고 생리적 기능 변화에 중요한 부분으로 간호 대학생에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간호사들에게도 활력징후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에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간호사의 중요성과 실제 수행하는 빈도에서 유의한 차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하부 영역별로 보면,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성 부분에서는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과 폐기물 관리가 일반병동에서 가장 우선항목인데 반해 특수병동에서는 경구투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병동에 비해 일반병동에서 피내주사, 수혈요법, 단순도뇨, 배출관장, 수술 전·후 간호, 입원관리하기와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핵심기본간호술이었다. 반면에 특수병동에서는 경구투약, 피하주사, 정맥수액 주입, 간헐적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와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병동특성별 간호사의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 차이가 있었다.

실제 수행 빈도에서는 특수병동에 비해 일반병동에서 더 많이 수행되는 핵심기본간호술이 수혈요법, 간헐적 위관영양, 단순도뇨, 배출관장, 수술 전·후 후 간호, 입원관리하기, 격리실 출입 시 보호 장구 착용과 배출관장과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이었다. 이 중 배출관장, 수술 전·후 간호, 입원관리하기와 비강 캐놀라를 이용한 산소 요법은 특수병동에 비해 일반병동에서 많이 수행될 뿐 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인지되는 핵심기본간호술이므로 일반병동을 실습하는 간호 대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반병동은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간호 대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병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실습 전 학습해야 할 필수 핵심기본간호술이라 할 수 있다. 특수병동에서는 일반병동에 비해 경구투약, 피하주사, 정맥수액 주입, 산소포화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 적용, 기관절개관 관리와 기본 심

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과 같은 핵심기본간호술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었다. 이 중 경구투약, 피하주사, 정맥수액주입, 기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과 같은 핵심기본간호술은 일반병동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도 인지되는 부분으로 특수병동 실습 전에 반드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사료된다.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수행 빈도 비교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써 의미가 있고, 일반병동과 특수병동 간호사들이 인지하는 취약한 핵심수기 항목을 찾아내는 것은 향후 학부교육 및 신규간호사 실무교육의 학습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에서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성과 실제 수행하는 핵심기본간호술 빈도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병동에서 중요하고 실제로 특수병동보다 많이 수행하는 일반병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과 특수병동에서 중요하고 일반병동에 비해 많이 수행하는 특수병동에서의 핵심기본간호술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핵심기본간호술 학습을 체계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초석이 되리라 사료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특수병동과 일반병동에 대한 정의를 세분화하여 간호학과 교과목 전반에 따른 핵심기본간호술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핵심기본간호술 습득에 따른 신규간호사의 직무능력을 확인하여 핵심기본간호술의 습득에 따른 효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H. Lee & I. Y. Yoo, "A study of psychosocial distress, intention to quit and nursing performance in general ward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9(2), p. 236-245, 2010.
- [2] Y. Y. Lee, K. O. Park, "Analysis of core intervention of operating room using nursing intervention

-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8(3), p. 361-372, 2006.
- [3] Y. O. Kim, “Perceive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RNs in the ICU”, Unpublished ma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6.
- [4] Y. K. Ko, “Group cohes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nurses in a special ward and a general ward in Korea”,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9(5), p. 601-610, 2011.
DOI: <http://dx.doi.org/10.1111/j.1365-2834.2010.01186.x>
- [5] M. H. Sung, “A comparative study on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between nurses in ICU and Nurses in general ward”,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2(1), p. 104-112, 2006.
- [6] E. J. Lee, W. H. Jun,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pp. 163-171,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63>
- [7]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Nurse core competency and nursing education learning outcomes”, Retrieved September 3, 2013, from <http://www.kabon.or.kr/>, 2012.
- [8] Seo, I. S., & Oh, S. M., Park, H. O., Ma, R. W. “Effects of Basic Clinical Practice Program in Academic Motivation, Critical Thinking and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76-2284,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4.2276>
- [9] J. C. McCloskey & G. M. Bulechek, “Nursing interventions used in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94(10), p. 59-66, 1994.
DOI: <http://dx.doi.org/10.2307/3464585>
- [10] J. Y. Choi, K. S. Jang, “Comparison of cancer nursing interventions recorded in nursing notes with nursing interventions perceived by nurses of an oncology unit-patients with terminal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5(3), p. 441-450, 2005.
- [11] E. H. Choi & J. Y. Seo, “Comparison among with Nursing Records, Nursing Intervention Priority Perceived by Nurse and Nursing Intervention Frequency of General Surgery Depar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21(3), p. 349-354, 2009.
- [12] M. H. Sung, J. H. Jeong, “Defining the core competencies of the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and comparing different units based o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2(1), p.76-93, 2006.
- [13] M. O. Lee, “Study of coping strategi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etween general ward nurses and special ward nurses”, Unpublished ma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2006.
- [14] J. M. Kim, S. H. Lee,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related to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An analysi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p. 229-238,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29>
- [15] J. S .Eom, J. Y. Song, H. J. Cheong, W. J. Kim, “Infectious disease consultations from surgical departm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Infection and Chemotherapy”, 39(6), p. 287-291, 2007.
- [16]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 for hospitals standards for hospitals standards lists version. Retrieved November 14, 2012, from view the standards hospital only version web site. 2011.
- [17] I. G. Kwon, M. S. Cho, H. Y. Shi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performance frequency of nursing intervention in the oncology unit in a tertiary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2), p. 260-273, 2007.
- [18] Y. A. Kim, S. Y. Park, E. J. Lee, “Comparison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nursing interventions linked to nursing diagnosis in cerebrovascular disorder pati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2), p. 296-310, 2008.
- [19] M. H. Cho, I. S. Kwon,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p. 143-154, 2007.

장 은 희(Eun-Hee Chang)

[정회원]



- 198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82년 3월 ~ 1985년 2월 : 김천과학대학
- 199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간호 시뮬레이션

모 문 희(Moon-Hee Mo)

[정회원]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간호학박사수료)
- 1995년 5월 ~ 2012년 2월 : 영남대학교 병원 간호사
- 2012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중양간호, 기본간호, 간호 시뮬레이션

최 은 희(Eun-Hee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 시뮬레이션